은혜로 새벽묵상 **(01/24/22)**

찬송 **: 483**장 **(**새 **539**장**)**

사도신경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8**절**>**

1. 오늘의 말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더 깊은 기도인 '금식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 간의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금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잘못된 금식**(16**절**)**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금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번 금식을 하였는데 (눅 18:12), 대부분 두 번째 날 (월요일)과 다섯 번째 날(목요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모세가 시내 산에 두 번 올라가 하나님으로 부터 율법을 받은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식의 원래 목적은 상실되고 남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날은 유대인의 시장이 여는 날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터에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금식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낡고 더러운 옷을 입기도 하며 머리를 흩트리고 흙과 재를 몸에 뿌리며 심지어는 얼굴이 창백하고

아픈 기색을 보이기 위하여 화장까지도 했습니다. 이러한 외식(가면을 쓴 연극배우라는 뜻)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 참된 금식 **(17-18**절**)**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7절)는 것은 사치하라는 것이 아닌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금식한다는 표를 내지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엄격한 금식을 할 때에는 기름을 바르는 것은 금했습니다(삼하 12:20). 그러나 금식할 때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고 흉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는' 자세로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계명으로 주시지 않았고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 혹은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금식도 구제나 기도와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행하여야 하며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관계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몸을 씻고 (17절) 하나님께는 나의 추악한 죄와 기도제목을 놓고 간절하고 은밀하게 드리는 것(18절)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금식기도의 자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실 때, 그리고 영적 싸움과 성장을 위해 금식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금식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은밀히 보시고,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2. 오늘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게 하소서

- 우리의 금식을 은밀히 보시고 응답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